

2024年韓國探訪計畫

研究報告書

主題：과거와 현대를 연결하고 있는 한국

一、研究背景與動機

내가 한국교환기간에 많이 느꼈던 것은 한국학생들이 자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상상력, 행동력이 너무 뛰어나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지내면서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았고 예전보다 나의 미래계획에 대해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선 내 단기목표는 2024 년 4 월에 있는 한국어능력시험에서 6 급을 따는 것이다. 내가 이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대만에 있을 때에도 한국어를 많이 배우고 연습해야 돼서 기회가 생기면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한 내 교환기간은 끝났지만 아직도 매일매일 한국 대중문화와 사회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내 장기목표는 사대에서 졸업한 후에 한국의 연구소에서 계속 공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번의 2024 년 한국방문계획을 통해 참여자들이 자신의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한국의 사회와 역사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나는 이번의 방문활동을 통해 한국의 대학 교육, 대학원 교육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그럼으로써 나의 연구소 계획에도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많은 목적들을 이루고 싶어서, 나는 이 방문계획을 신청하기로 결심했다.

마지막으로 이번의 방문계획을 통해 실제적으로 많은 역사문화유산지에 가고 나서, 거기에서 내 눈으로 사적과 옛날에 문화유적을 보고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일상생활을 지냈는지도 알게 될 수 있고, 지금 우리의 현대생활과 비교하며 더 새로운 관점이나 생각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二、研究目的與問題

111-1 학기에 나는 사대에서 한국민주화와 영화라는 수업을 들었다. 매번 영화 속의 슬픈 이야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나는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궁금해졌다. 내가 이런 장면들을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번의 방문계획을 통해 의미있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쌓기를 바란다.

또한 나는 개인적으로 사극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특히 ‘빛나는 행복의 궁전’ 으로도 알려진 경복궁과 덕수궁에 더욱 더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의 연구문제는 3 가지가 있다. 첫째는 거기에서 어떤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었는지 알고 싶다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건물 안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있는지가 궁금해서 실제로 가보고 나서 내 눈으로 직접 과거의 이야기를 느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가 이 역사유산들이 문화적으로 사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에 한 번 가보고, 과거의 한국을 분석한다면 현재의 한국사회와 문화에 대해서도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런 방식으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면 역사라는 것은 인간사회에게 어떻게 중요하게 작용하는지도 알게 되기를 바란다.

三、 研究辦法及研究內容

1. **박물관에서 연구하는 방법:** 현장에서 자세하게 관찰해보고 직접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외국인이라서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문화와 의제를 많이 시도하기. 예를 들면, 청와대에서 직접적으로 회의실을 한번 볼 수 있었고, 주변의 시설을 통해 당시의 정치상황도 알 수 있는 것 같다. 또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고전선시대부터 시작한 한국 역사를 다양한 전시물과 기록을 통해 후대에게 전달했다. 이 다양한 관람방법을 덕분에 국립고궁박물관은 외국인이더라도 쉽게 한국의 역사발전을 이해시킬 수 있었다.
2. **한국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새로운 정보를 얻기:** 이런 방식으로 한국문화를 하나씩 배우며 한국에 대해서 더 많은 이해와 관심을 생길 수 있었다. 예를 들어서 외국어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의 이야기 중에 “얼죽아”라는 줄임말을 알게 되고, 한국인들이 자주 쓴 일상생활의 줄임말도 재밌게 배웠다.

四、 研究成果

활동 과정 중에는 전통문화와 관련된 체험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미있는 역사문화유산지에도 갔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의 방문계획을 통해 나는 더이상 관광객이 아닌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다양하고

타임라인을 뛰어넘은 문화와 역사를 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부터는 각 다녔던 장소에 대한 개인적인 연구성과를 발표할 것이다.

1. **낙산공원:** 예쁜 야경으로 유명한 낙산공원이 내가 아침에 간 적이 없었다. 올라간 길은 생각보다 더 밀끄럽고 몇번에 넘어질 뻔했는데 주변 친구들이 다 빠르고 안전하게 걸어서 내가 그들이 신기하다고 생각했다. 산꼭대기에 도착했을 때 다들이 힘들어 보인데 경치는 정말 예뻐서 또 흥분한 것 같았다. 내가 그때 거기에 서서 밑에 도시의 풍경을 보면서 예날 사람들의 상황을 상상했다. 또한 옆에 성벽을 보고 이런 아름답고 의미적인 것을 잘 남아서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2. **특강1-한류와 문화산업:** 외국어대학교 교수님의 특강을 통해서 한류의 역사를 세대의 변화가 따르면서 전세계로 확장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먼저 스크린 쿼터를 덕분에 한국 국산영화를 보호하시켰고, 또한 외부 대박영화가 준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국산영화도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대중의 시야에 들어왔다. 1990년대 경제위기를 버티고 나서 비즈니스 모델 투자, 정부의 지원이 있어서 한류의 발전도 예전보다 훨씬 더 활발하고 문화상품으로써 세계시장에서 한 특별한 역할을 담당했다. 결국에 **K-wave** 라는 한국 유행문화의 발전은 문화의 규격화, 대량생산, 중독성을 인해 전세계로 확장된 형상이다.
3. **청량리전통시장:** 이번 기회를 통해 젊은 세대에게 낯선 전통시장에서 일반 한국사람들이 어떻게 일상구매를 완성하는지도 알게 되었다. 여기에 판 과일, 해산물과 야채를 인간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식재료라서 한번 구경해보고 나서 최근의 한국 경제상황도 대충하게 알 수 있는 것 같다.
4. **청와대:** 청와대에서 직접적으로 회의실을 한번 볼 수 있었고, 주변의 시설을 통해 당시의 정치상황도 알 수 있는 것 같았다. 내가 이번에도 청와대 뒤에 있는 백암산이라는 산을 잘 관찰해서 사람들이 왜 청와대는 불행한다는 얘기도 이해할 수 있었다. 많은 기사에 따르면 백암산의 정면을 보니까 민둥민둥한 산비탈을 가지고 있어서 운은 안좋다고 말했다. 이런 얘기의 생긴 이유는 풍수이라는 것이다. 내가 놀랐던 것은 한국인들도 우리랑 같은 미신을 따르는 것이다. 이런 미신은 정확하는지도

모르지만 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청와대는 신비한 이미지를 줬다. 내 친구들이 내가 청와대에서 찍은 사진을 보고 나서 여기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는 메세지도 많이 보냈다. 심지어 내 한국친구들 중에 청와대에 방문 한 적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내가 더 흥분하게 되었다.

5. **인사동:** 전통문화거리로 유명한 인사동은 내 생각보다 더 현대적이고 전통놀이만 판 곳이다. 그리고 옆에 상점이 판 것들도 내 생각보다 비싸다. 다행한 것은 인사동의 길거리 음식들은 그렇게 비싸지 않았다. 내가 호떡을 시킬 때 사장님이 또 내가 일본인인 줄 알고 일본어로 나한테 얘기해서 내가 조금 당황스러웠다. 그 후에 우리가 좁은 골목으로 가고 더 특별한 한옥카페를 발견했다. 내가 한국에 대해 계속 감탄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과거의 한옥이랑 현대적이고 예쁜 카페의 조합이다. 어떻게 둘이 잘 맞고 또 다양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질문을 내가 한옥카페들이 지나갔을 때도 계속 떠올랐다.
6. **특강 2-한류의 문화할증:** 이 특강 중에서 교수님이 문화할증과 문화할인에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알려드렸다. 이 둘의 차이는 문화라는 것은 다른 환경, 조건, 역사배경에서 다른 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이다. 예를 들면, 한국의 국산영화를 다른 국가에게 수출하고 싶으면 먼저 거기의 영화시장의 상황을 알아봐야 되고, 또 시청자의 취향을 따라서 어느 정도에 조절할 상황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하면 피해할 수 없는 상황은 수출하고 수입한 문화상품으로써 그 자신의 지역성과 글로벌 가치 중에 갈등이다.
7. **국립고궁박물관:** 예전에 교환학생으로 한국에서 잠깐 살고, 몇번에 경복궁도 갔는데 여기에 한번도 못가봐서 내가 아쉽다고 생각했다. 다행한 것은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건물 안에 있는 전시회를 다 보고, 의미가 있는 스탬프도 수집한 것이다. 또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고전전시대부터 시작한 한국역사를 다양한 전시물과 기록을 통해 후대에게 전달했다. 이 다양한 관람방법이 덕분에 국립고궁박물관은 외국인이라도 쉽게 한국의 역사발전을 이해시킬 수 있었다. 내가 한국역사박물관 안에서 제일 흥분했을 때는 예전에 왕과 왕태자의 입었던 옷을 본 것이다. 내 눈으로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는 역사유물을

본 것은 이번 국립고궁박물관의 구경경험에서 가장 기억이 남은 부분이다.

8.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과거에서 아픈 역사의 흔적을 남기고, 후대에 대해 애국신과 교육의미를 주는 장소다. 이런 복잡한 감정과 깊은 교육의미가 담긴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 현재 사회에게 또 무슨 영향을 주는지가 알고 싶었다. 그래서 이번의 기회를 통해 내가 내부에 전시를 따르면서, 숨겨진 이야기와 독립운동가들의 결심, 힘을 더 쉽게 알았다. 1987년 전에 전국에서 제일 큰 감옥으로서 운영했던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각 민주운동가들이 인간의 기본권리를 위해 어떤 아픈 고문을 당했고, 얼마나 많은 피, 땀과 눈물을 흘렸던 모습도 여기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방문자에게 보였다. 이번의 기회를 통해 우리가 더욱더 한국 역사를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시민에 대해서 정부가 이 슬픈 역사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는 의미, 반일감과 애국심을 키울 것 같다. 내가 개인적으로 깜짝 놀란 것은 방문자들 중에 어린 아이들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았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과거의 아픔과 슬픈 이야기를 담은 장소인데, 내가 봤을 때도 무섭다고 생각이 몇 번 들었는데, 한국 부모님이 다 부드러운 말투로 아이에게 설명해주고, 지금 사회에 대해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천천히 말해줬다. 내가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대만 아이들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9. 전쟁기념관: 순으로 전시에 따르면 알게 된 것은 전쟁이 개인전이 아니라 주변의 지역, 국가도 똑 같은 무서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1950년 6월 25일에 시작한 한국전쟁부터 1960-1970년에 있는 베트남 전쟁까지 한국군인한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았는지 이 기념관 안에 보존하고 있는 증거를 통해 후대에 반전적인 반성을 불러일으켰다. 동시에 현대사람에게 평안한 삶을 위해 평화를 잘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10. 한국인들과 교류활동: 한국인들과 대화를 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새로운 정보를 얻었다. 이런 방식으로 한국문화를 하나씩 하나씩 배우며 한국에 대해서 더 많은 이해와 관심을 생길 수 있었다. 예를 들어서

외국어대학교에서 교수님들과 이야기 중에 “얼죽아”라는 줄임말을 알게 되고, 한국인들이 자주 쓴 일상생활의 줄임말도 재밋게 배웠다. 그리고 가장 깊은 기억은 한국인 친구들이랑 같이 경복궁에 구경하고, 옆에 있는 민속박물관도 간 것이다. 거기에서 우리 외국인들이 모른 단어거나 한국전통문화가 있으면 한국친구들이 다 친절하게 설명해서 또 몇번에 그들이한테 감사한다고 말하고 싶었다. 그중에 또 한명 한국인 친구가 대만 정치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길을 걸으면서도 계속 대만대통령 투표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눴다.

11. 남산타워

원래 계획에서 22 일에 남산타워에 올라가야 됐는데 그날에 날씨가 안좋아서 내가 스스로 25 일에 혼자 올라갔다. 내가 80 몇층에서 서울 야경을 보고, 그동안 한국에서 있었던 기억을 갑자기 생각났다. 또한 전망대의 표시를 통해 어떤 방향은 어딘지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대만의 표시스티커 앞에서 대만인한테 사진을 찍어달라는 부탁도 했다. 그 중에 재있있는 것은 남산타워 전망대의 시설은 타이페이 101 이랑 비슷한 점이 많은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때 떠올린 생각은 혹시 모르게 서로 참고한 가능성이기도 있는 것이다. 근데 대만에 돌아와서 인터넷에 보니까 남산타워가 타이페이 101 보다 더 일찍 지어져서 그런 서로 참고한다는 생각을 확실하게 틀렸다.

12. **결론:** 이번의 한국방문계획을 통해 내가 더 깊은 한국역사와 문화를 알게 되었다. 2023년에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서 살았는데 그때 대부분 시간에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해서 더 이상 어려운 한국역사와 전통문화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근데 이번에는 내가 박물관에 가고, 역사유물의 소개문장도 읽을 수 있어서 더 많은 지식을 얻었다. 이 방문계획이 덕분에 내가 나의 한국어능력을 알게 되고, 한국인들과 교류한 과정에서도 한국어 말하기를 연습했다. 거의 1년을 지냈는데 예전에 갔던 장소는 아직도 여전히 있고 그런데 이번에 갔을 때 또 새로운 추억을 추가했다. 내가 처음으로 간 곳도 나에게 너무 신선하고 또 재미있는 새로운 것을 알게 될 수 있어서 정말 즐겁다고 생각했다. 나중에 또 이런 방문계획을 참여할 수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서 좋은 기억을 충분히 남아서 그들을 내 마음속에 오래동안 있을 것이다.